

부활절 두 번째 주일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2<sup>ND</sup> SUNDAY OF EASTER

주후 2020년 4월 19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새 28)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16 번 시편(Psalm) 63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 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권영수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Leading	<b>히(Hebrews) 7:1-10</b>	장경국 집사
설 교 Sermon	<b>“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Blessed Him Who Had The Promises)</b>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특송: 윤홍준 집사, 반주: 고혜정 집사)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363 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새 337)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찌라”고 성경은 말씀하지만,

우리는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중심에서부터 통회하며 죄로부터 돌이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추상적이었고, 우리의 회개는 막연했으며, 우리의 삶은 위선적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거짓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부활을 살아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 11:6)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십분의 일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한글개역 **히7:6**)

“This man, however, did not trace his descent from Levi, yet he collected a tenth from Abraham and blessed him who had the promises” (NIV **Hebrews 7:6**)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4/19 (주일)	4/20 (월)	4/21 (화)	4/22 (수)	4/23 (목)	4/24 (금)	4/25 (토)
	레24	레25	레26	레27	민1	민2	민3
본문	시31	시32	시33	시34	시35	시36	시37
	전7	전8	전9	전10	전11	전12	야1
	딤후3	딤후4	딤후1	딤후2	딤후3	문1	히1

수/요/성/경/공/부

수요 성경공부 (4/22수 오후7:30)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민11:10-23)
------------------------	-----------------------------

지난 주일(4/12, 부활주일) 말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사 25:6-9)**

“부활절은 코로나와 가시관의 싸움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왕관(Crown)'을 뜻하는 '코로나(Corona)'를 쓴 사람들에게 의해, 예수님께서서는 고통의 '가시관'을 쓰셔야 했고, 십자가에서 잔혹한 죽임을 맞이하셔야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지만, 첫번째 부활절을 맞이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의 평강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단지)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집 안에서만 숨죽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라고 선언하시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 때, 그들의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었고, 그들의 불안은 믿음으로 바뀌었으며, 그들의 두려움은 능력으로 바뀌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사25:8)는 (구약) 언약의 분명한 성취였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 다시금 찾아오셔서,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의 평강과 성령의 능력을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메/모